

■ 광주 구청장 2019 신년사

# “일·사람·돈 불리는 활력 모델 세울 것”

김삼호 광산구청장

“광주 세계수영대회, 지역 성장 발판 활용”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신년사에서 “일과 사람, 돈이 불리는 광산형 활력 경제 모델을 세워 전국에 전파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2일 오전 10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와 함께 시무식을 갖고 새해 구정 전반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어려움을 겪는 경제 주체들이 힘을 내도록 광산구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지역 각계와 연대해 생기를 회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난달 문을 연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활성화를 지역 실천 동력으로 제시했다.

경영·금융·기술·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합류한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에

로를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수행한다. 김 청장은 “분석과 대안 제시에 고전하는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사회적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며 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맞춤형 복지 실현과 마을공동체 복원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김 청장은 “지난해 중앙과 지방, 민간별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세밀하게 분석했다”며 “올해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분야에서 투자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에 주요 경기장을 두고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지역 성장 발판으로 삼겠다는 정책 구상도 제시했다.

오는 7월 12일부터 18일간 펼쳐지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8월 5일부터 2주 동안 동호인이 참가하는 마스터스 선수권대회 모두 광산구에 소재한 남부대학교 시립 국제수영장을 중심으로

열린다. 광주가 거들 부가까지 효과는 6천 500억원, 생산 유발효과는 1조4천억원으로 광주전남연구원 전망했다.

김 청장은 “전 세계에서 10억명 이상이 TV로 지켜볼 대회는 광산구에도 큰 기회”라며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친절하고 정감 넘치는 맛, 추억을 선사하는 이벤트로 다시 찾고 싶은 광산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 편입 30주년을 맞은 광산구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청장은 “한 세대 동안 광산구는 광주의 중심으로 성장했다”며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시대 등 모든 변화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한 세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훈석 기자 ghs@



# “소통행정으로 주민 행복 복구 건설”

문인 복구청장

“6천억원 이상 예산 편성...청년 돌아오는 도시 조성”

문인 광주 복구청장이 “민생·동행·혁신의 소통 행정으로 주민이 행복한 복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2일 새해 포부를 밝혔다.

문 구청장은 “2019년 복구에서는 최초로 6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구민과 약속한 민선 7기 핵심 사업들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복구의 모습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복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구는 올해 기업과 일자리가 늘어나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청년과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데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민의 일상생활이 행복한 도시로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복구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목표로 경제 종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산업단지 지원,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일자리 매칭 등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드론 비행연습장을 조성해 4차 산업의 신성장동력인 드론산업 육성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종합 컨설팅, 청년창업 종합지원, 사회적·마을기업 육성, 복구 노동센터 운영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분촌·첨단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등 중소기업 지원 시책들을 다양하게 펼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김정관 기자 kissout@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광주역 일대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밀착형 SOC 확충 등 사업을 펼친다.

특히 광주역 주변에 ‘청춘 창의력 시장’, ‘창의문화 산업 스타트업 벨리’,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제작지원센터’ 등을 구축해 광주를 대표하는 빛과 젊음의 공간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끈다.

문 구청장은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복구의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민이 주인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민생·동행·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복구,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 개선

1명이 1천여건 신고로 부작용 속출...일반 갓길 제외

한 사람이 수백건에서 1천여건이 넘는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시민 신고를 하는 등 부작용에 시달린 광주 복구가 신고제도를 개선했다.

일반 갓길을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속조건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무차별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

3일 광주 복구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주민이 생활 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도록 했다.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첨부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참여형 신고제도다.

2014년 시행 초기에는 구청 단속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생활 불편 현장을 개선하는데 일조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작용이 생겨났다.

한명당의 주민이 많게는 1천여건이 훌쩍 넘는 신고를 반복하면서 다른 주민들이 오히려 고통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복구에는 총 1만8천215건의 불법 주정차 생활 불편신고가 접수됐다. /김정관 기자 kissout@

이 중 한 주민은 전체 신고 건수의 10%에 달하는 1천720건을 신고했고, 1천26건·971건·829건을 신고한 주민들도 있었다.

2017년에는 전체 1만4천105건의 신고 건수 중 한 주민이 1천761건을 신고하기도 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밤늦은 시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이면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이 반복적인 시민 신고를 당하면서 오히려 고통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복구는 올해부터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단속대상이던 일반 갓길은 모두 단속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보도(인도), 횡단보도(접촉), 버스승강장(사진상 승강장 사진 포함), 안전지대, 이중주차 등으로 단속조건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복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과도한 불법 주정차 신고 등이 잇따라 오히려 주민민원이 발생해 단속조건을 개선했다”며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도는 주민불편을 개선하지는 않지만 만큼 지나치게 과도한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관 기자 kissout@

## 남구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 사업장’ 3곳 지정

2년간 지도점검 및 조사 면제·행정 지원 등 혜택

광주 남구가 자동차 관리업계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고품질 자동차 정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에서 자동차 관리사업장을 운영 중인 3개 업체를 모범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남구는 3일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장 선정”을 위해 관내 162개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실사 등을 거쳐 ㈜광주 자동차공업사와 ㈜동양자동차 정비공업사, ㈜우일1급 자동차 서비스 등 3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장 선정을 위해 지난 해 말께 고객 서비스를 비롯해 사업장 시설 및 환경, 고객만족 등 평가 항목에 따라 현지 실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3개 사업장은 평가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상위 점수를 기록해 모범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이들 업체들은 향후 2년간 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사 면제되며,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관용차량의 모범사업장 이용 권장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 혜택을 주어진다.

남구 관계자는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모범사업장을 지정한 만큼 자동차를 소유한 남구 주민들이 고품질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범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 관내에서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장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남구청과 복구청 2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기사제보 227-0000

**대한가스연합**  
THE KOREA GAS UNION

#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해동안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己亥年에도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16(역삼동) | TEL : 02-563-8107 FAX : 02-563-9616 | 홈페이지 : www.kgu.or.kr